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말성경 빌립보서 1:6)

>소심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친구들을 불러 함께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한 해를 마감하던 날들이 그리워지는 12 월이다. 여전히 바쁘고,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북적거리고 있지만, 이번 해는 웬 지 더 외롭고 소심해 진다.

현지학교들은 12 월 겨울방학이어서 인지, 우리 부부가 일하는 곳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통로와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로 들썩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향한 연민과 외로움이 함께 곱친다.

12 월에 들어서며 가게 입구에 작은 크리스마스 화환을 하나 걸었다. 그리고 방문 손님들에게 “메리크리스마스”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행동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공휴일이라 즐기고 있는 현지 영혼들을 향한 연민과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을 울려 주길 소망하며 주께 드리는 간절하고 소심한 영혼구원이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를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지인과 가족들이 그림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한 시간이다.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이겨 나갈 힘과 능력이 절실한 시간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부부의 소망이자 능력하신 그분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필요하다. 황량한 이 땅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켜야할 믿음의 확신과, 우리 부부를 이곳에 부르신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견고 해져서, 어떠한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믿음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져 2023 년계묘 해를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현지생활 >>>.....

2022 년은 한국인 기독교 사업가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기 위해 영육 간에 씀없이 달려온 해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 지내왔던 시간들 중에서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업가로서 이들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고, 이해하며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해였습니다. 더불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3 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 부부는 이전보다 더 큰 소망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워서 허물어진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의 영혼들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그날을 더욱 소망합니다.

>>> 함께 해주세요 >>>>.....

- 저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성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고 순종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상황과 환경에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숙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023 년엔 관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를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그리고 사업 관계자들과 밀접하고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직원들과 사업관계자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후원안내: 권태산/심청수

GP USA: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Tel: 714)774-9191

GP KOREA:(130-200)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새말로 8 길 1/Tel: 02)443-0883